

2015년 도 제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5년 4월 23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송 재 정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성 준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2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5년 4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5년 4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시 주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최신 경제전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발간시기를 종전 3월 및 9월말에서 4월 및 10월말로 변경하였고, 기존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정책방향’ 부문을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과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으로 분리하고 운영여건 부문에 금년 4월 당행의 경제전망 내용을 수록하는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물가에 대한 기술을 대폭 확충하였음.

또한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 배경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변화 및 전망과 연계하여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국제유가 하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 기준금리 인하의 은행 여수신금리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부문의 국내 경제전망 내용에 대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동 내용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명시하되 위원들의 주요 논의내용을 작성대상 기간 중에 공표된 의사록을 활용하여 수록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일부 위원은 유희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가 보조지표의 성격임을 명기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승수 등을 포함하여 통화지표에 대한 서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및 파급경로 관련내용, 물가안정목표 운용현황과 성과 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수록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수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들이 제시한 보고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고서 작성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동 보고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언론과 국회, 경제전문가 등이 많은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보고서 공개 후 동 내용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5년 4월)(생략)